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여성 복식스타일에 나타난 장식에 관한 연구

손효림·김정미^{†*}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A study on the Decoration of Women's costume style from the
18th century to the 19th century

Hyo-Rim Son · Jeong-Mee Kim^{†*}

Master, Dept. of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17. 7. 27 등록; 2018. 2. 9 수정; 2018. 2. 19 채택)

Abstract

This study aims at looking into women's costume style seen in 18th century to 19th century, and reason out a major decoration, then the formative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decoration were analyzed. Research results are same as follows. Firstly, the style of women's costumes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includes the Rococo style, Polonaise style, Neo-classic style, Romantic style and Bustle-style. The main decorations shown in these styles are the gather·pleats·drape of Fold decoration, the flat embroidery·quilting of embroidery decoration, and the ribbon·braid·fringe·button·feather and fur of attachment decoration. Secondly, the analyzed results found the formative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decoration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women's costumes. Fold decorations appeared as a voluminous property in the form of gown·mantua·jacket·pelisse and dress. Especially, femininity and exaggeration were expressed through greatly inflated skirts. Embroidery decoration appeared as planarity by making patterns of gown·mantua·jacket·stomacher·overskirt·coat·dress·shawl and dolman. Especially, exaggeration and extravagance were expressed through embroidered mantua surfaces with peony·rose·poppy·primrose·daffodil·morning glory·tulip·leaf and lattice patterns in variety of colored silk threads. Attachment decorations were mixed with elements of heterogeneity added to jackets, coats, gowns, petticoats, stomachers, mantuas, pelisses, mantles, dolmans, capes, overskirts and dresses. In particular, exaggeration and extravagance strongly expressed through the decoration with white fox fur at the hemline, neckline and sleeves of cream colored silk dolman.

Key Words: fold decoration(주름장식), embroidery decoration(자수장식), attachment decoration(부착장식)

[†]Corresponding author; Jeong-Mee Kim
E-mail : jmkim@pknu.ac.kr

I. 서론

윌리엄 보링거(William Worringer)는 장식이 독자적 표현성을 가지며, 하나의 형식을 갖는 근원적인 예술 활동이라고 말한다(한명숙, 1998). 그리고 복식 장식은 복식의 미적 수단으로서 다양한 방법과 기법을 통해서 스타일별 독창성을 강조한다.

특히, 18세기와 19세기 복식 스타일에 있어 장식은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미술인들은 장식미술을 통해서 그들의 스타일을 전 유럽에 유행시켰으며, 복식스타일은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의미를 살려 장식적이고 귀족적인 취미가 그대로 나타났다. 이순홍(2003)과 정화연(2007)은 복식 장식을 단순히 실용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귀족계급의 부와 권력의 과시에 이용되었으며, 화려한 미의 표현을 과장된 장식과 형태로 진보시킨 예술 활동이라 하였다.

한편, 18세기와 19세기의 복식에 관한 논문으로는 류경화·김양희(2014)의 18세기 회화에 나타난 프랑스 궁정 여성복식의 색채 연구, 김양희·김현주(2012)의 17~18세기 프랑스 서민복식 연구, 배수정(2012)의 Marie Antoinette의 초상화를 통해 본 18세기 후기 여성 복식의 변화와 계몽주의 사상, 이정화(2007)의 19세기 서양 남성복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 로맨티시즘 경향과 특징을 중심으로, 함연자(2005)의 18~19세기 복식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양식의 미적 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장식에 관한 논문으로는 장식 봉제 기법에 관한 연구(김지영, 2004; 안효진, 2008; 이나영, 2009), 스티치 장식기법에 관한 연구(김해순, 2002), 비즈장식에 관한 연구(이슬아, 2004; 정경희, 2003), 부착 장식 기법에 관한 연구(이경옥, 2009), 개더에 관한 연구(정희경 외, 2004), 입체적 장식 기법(나수임, 2012), 복식사에 나타난 장식(이순홍, 2003; 정화연, 2007)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살펴 본 결과, 18세기와 19세기 복식에 관한 논문과 현대복식에 나타난 장식에 관한 논문은 다수 있지만, 장식 기법이 가장 다양하게 표현되었고, 발전하였던 18세기와 19세기 여성 복식을 중심으로 장식을 면밀히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8세기와 19세기 여성

복식스타일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장식 방법을 도출한 후, 18세기와 19세기 여성 복식에 나타난 장식의 조형적 특징과 미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18세기와 19세기 여성 복식 스타일에 대해 살펴본 후, 주요 장식 방법을 도출한다.

둘째, 18세기와 19세기 여성 복식에 나타난 장식의 조형적 특징과 미적 특성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먼저 장식과 복식 장식, 18세기와 19세기 여성 복식 스타일을 살펴보기 위하여 패션 관련 사진, 장식과 복식사 관련 국내·외 서적, 선행 논문과 인터넷 자료를 통해 문헌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18세기와 19세기 여성 복식에 나타난 장식의 조형적 특징과 미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 과 『NINE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 의 근접촬영 사진 164점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 도록은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에서 편찬한 것으로, 복식의 장식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담고 있어, 18세기와 19세기 여성 복식에 나타난 정교한 장식과 기법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관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식의 정의와 복식 장식의 목적

장식(ornament)이란 사물의 외면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는 것으로, 물건에 달린 개개의 장식, 그 형식이나 모티브를 말한다. 장식은 그릇·가구·옷 등에 쇠붙이·형갈·뿔·돌 따위로 여러 물건을 만드는 근원적인 예술 활동에 토대를 두고 있다(한명숙, 1998). 장식은 구성상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디자인의 미적 표현을 돕기 위하여 변화시키거나 덧붙여 효과를 주며, 인간자신과

생활공간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나타난다(Herbert, R., 2001).

최초의 장식은 원주민족들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신체의 종교적, 정신적 보호 또는 종족 상징, 계급표시, 적에 대한 위협, 성별 표시 등을 위해 피부에 채색을 하기 시작한 문신과 체형의 변형에서 유래되었다(김문환, 2000). 이러한 신체장식이 의복으로 대치되면서 인간은 오랜 역사 동안 복식을 장식하여 자신을 표현했다. 복식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특유의 기술과 방법, 즉 외적 형식은 한 시대의 미적 기준을 바탕으로 복식의 특유한 양식을 형성하였으며, 한 시대의 복식은 그 시대의 정신·사상·감정 내지는 미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김민자, 2013).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장식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다양하다. 에드문드 리치(Edmund Leach)는 “인간의 장식행동은 이성적이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으나 행위자의 문화적 관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Victoria, E., 1988). 테드 폴허무스(Ted Polhemus, 1988)는 장식을 부의 과시, 기분(mood)의 지시자, 관계의 상징, 성적 흥미의 지시자, 자아정체감의 지시자로서 자아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설명하였다. 힐레르 힐러(Hilaire Hiler, 1929)는 장식을 모든 사람들이 남녀 상호간에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 무서운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미적 경험의 수단으로, 자아만족과 자아연장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했다(김민자, 2013). 그리고 이순홍(2003)은 장식이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행복한 심리적 감정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 또한 장식이 의복에 더해져 실용적인 면을 보완해주며, 미적 표현을 가하여 의복의 가치와 개성을 높여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분사회가 엄격했던 시대에 장식은 권력과 힘의 과시, 타인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복식을 통해 신분이나 계급이 드러나게 되면서 장식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복식 장식이 극도에 달했던 낭만주의 시대 귀족 여성들은 바탕의 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면을 화려하게 장식한 복식을 착용하였다. 과장되고 사치스러운 소재 위에 금사와 은사로 수를 놓고, 진주와 다이

아몬드 등의 진귀한 보석과 레이스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여 자신들의 신분과 부를 과시하였다(김민자 외, 2010). 그리고 이러한 복식들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부드러운 목선과 풍만한 가슴, 엉덩이 등 여성의 몸을 강조하는 부위에 장식하여 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성적 흥미를 유발시켰다(정화연, 2007).

이와 같이 여성복의 장식은 자신의 신분·권위·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을 드러내어 다양한 여성미를 표현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2. 18세기와 19세기 여성 복식스타일의 특징

1) 로코코 스타일(1715-1774)

로코코 스타일(Rococo Style)은 루이 15세 시대에 직물공업과 염색기술이 발달하고, 예술전반에 귀족적이고 곡선이 주를 이루는 장식미술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실루엣은 코르셋(corset)으로 허리를 가늘게 조이고 파니에(panier)로 스커트를 화려하게 부풀리는 아워글래스 실루엣으로, 색상은 주로 높은 명도의 부드러운 옐로우·짙은 레드·블루 등이며(정홍숙, 2009), 소재는 무늬가 없거나 작은 모티프들이 섞인 가볍고 섬세한 레이스·실크·모슬린(mousseline) 등을 사용하였다(Blanche, P., 1988). 현대의 코트와 입는 방식이 비슷한 로브(robe)의 넓게 파진 데콜타주(decolletage)는 러플(ruffle)·프릴(frill)·리본(ribbon)을 달아 관능적인 여성미를 강조했다. 로브의 소매 윗부분은 타이트하고 아래는 플레이지며, 소매 밑단은 앙가장트(engageantes)나 파발라(fabala)를 달아 장식하였는데(정홍숙, 2009), 주로 귀족들은 고급 레이스를 사용하였고, 서민들은 수놓은 모슬린을 사용하였다(Blanche, P., 1988). 로브의 벌어진 보디스를 연결해주는 스테머커(stomacher)는 역삼각형의 뿔뿔한 패넬로, 보디스의 벌어진 틈에 핀으로 고정된다(Beatrice, B., 2013).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스테머커에 화려하게 자수를 놓았고,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점차 크기가 작아지는 리본·꽃·프린지 등을 달아 장식하였다(김영옥, 안수경, 2010).

<그림 1>은 로브 볼랑(robe volante)을 착용한 여성의 뒷모습으로, 루이 14세 때 몽테스판 부인

이 임신 중에 입었던 넓은 실내복이 유행하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로브 볼랑은 네크라인 뒤쪽에서 박스플리츠가 두 겹 혹은 세 겹으로 접혀 어깨 아래로 풍성하게 늘어지는 형태이다(백영자, 김윤희, 2010). 이는 ‘색 백 가운(sack back gown)’ 혹은 ‘와토 플리츠 가운(watteau pleats gown)’이라 불린다(James, L., 2010). <그림 2>는 로브 아 라 프랑세즈(robe a la francaise)를 착용한 마담 폼파두르(Madame de Pompadour, 1721-1764)의 모습이다. 로브 볼랑의 변형인 로브 아 라 프랑세즈는 코르셋을 착용하여 보디스가 꼭 맞으며, 스커트 버팀대인 타원형의 파니에를 속에 입어 스커트가 양 옆으로 벌어진 형태이다. 로브의 보디스가 V자형, 스커트가 A형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드러나는 스타머커와 언더스커트는 로브와 유사한 소재로 만들며, 리본·꽃·프릴·러플로 섬세하게 장식했다. 이는 의상 자체가 완전한 하나의 예술품과 같이 보이게 했다.

이와 같이 1715-1774년에 나타난 로코코 스타일은 로브 볼랑·로브 아 라 프랑세즈·코르셋·스타머커·언더스커트·파니에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관능적인 아워클래스 실루엣에 옐로우·딥 레드·블루 등의 실크·레이스·모슬린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 스타일은 데콜타주를 러플·프릴·리본으로, 슬리브를 여러 겹의 양가장트·과발라·자수로, 로브·언더스커트·스타머커를 러플·프릴·리본·프린지로 정교하고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2) 폴로네즈 스타일(1774-1790)

폴로네즈 스타일(Polonaise Style)은 루이 16세가 집정했던 시기에, 마리 앙투아네트 복식의 영향과 프랑스 혁명 후 부르주아들이 활동성을 중시하게 되면서 나타났다. 실루엣은 중기의 거대했던 파니에가 축소되면서 스커트의 통이 좁아지고 길이가 약간 짧아진 버슬 실루엣으로, 색상은 주로 퍼플 브라운·아이보리·레드 등에 소재는 실크와 실용적인 코튼이나 울 등을 많이 사용하여 기능적이면서 화려한 여성미를 표현했다(정홍숙, 2009).

<그림 3>은 로브 아 라 폴로네즈(robe a la polonaise)를 착용한 여성의 모습으로, 로브 아 라 폴로네즈는 폴란드의 민족복에서 힌트를 얻었으

며 1776년부터 유행하여 1785년에 절정을 이루었다(정홍숙, 2009). 로브 아 라 폴로네즈는 오버스커트가 끌어올려지면서 힙에 세련된 볼륨감이 생기는 것으로, 고리를 단추에 묶거나 리본을 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신상옥, 2010). 드레이프된 오버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안에 착용한 페티코트(petticoat)는 드러나게 되었다. 여성들은 러플과 프릴을 달아 페티코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고애란, 2008). 보디스는 프린세스 라인으로 재단된 것처럼 몸에 꼭 맞고, 소매는 자보 슬리브(jabot sleeve)로 팔꿈치까지 오며, 그 끝은 조밀하게 잡은 러플로 장식했다(정홍숙, 2009). <그림 4>는 1778년경부터 나타난 로브 아 라 랑글레즈(robe a la langlaise)의 모습이다. 이 로브의 특징은 뒤판을 꼭 끼게 구성하여 뒷 중심에 뽀족한 예각을 이루는데, 그곳에 잔주름을 잡아 부풀면서 파니에를 입지 않아도 버슬 실루엣을 이루는 것이다(신상옥, 2010). 네크라인이나 데콜타주에 프릴 장식을 했고, 소매는 길고 좁은 모양에서부터 부드럽고 풍성한 팔꿈치 길이의 퍼프 슬리브까지 다양하다(정홍숙, 2009).

이와 같이 1774-1790년에 유행한 폴로네즈 스타일은 로브 아 라 폴로네즈·로브 아 라 랑글레즈·오버스커트·페티코트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활동성을 고려한 실루엣에 퍼플 브라운·아이보리·레드 등의 실크·울·코튼 등이 사용되었다. 이 스타일의 특징은 슬리브·페티코트·데콜타주를 프릴과 러플, 오버스커트를 드레이프와 잔주름을 이용하여 화려하면서도 활동적인 스타일이 되도록 장식한데 있다.

3) 네오클래식 스타일(1790-1820)

네오클래식 스타일(Neo-classic Style)은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Napoleon) 1세의 제정 기간에, 부르주아들이 귀족풍을 근절시키고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문학·과학·예술 등 고전을 배우면서 유행한 신고전주의 양식이 복식에 영향을 미쳐 나타났다(김영옥, 안수경, 2010). 따라서 프랑스 혁명 이전의 후프스타일과는 반대되는 간결하고 직선적인 스타일을 특징으로 자연미를 중시한다. 이 스타일은 여성의 아름다운 목선이 드러날 수

있도록 네크라인을 깊게 판 앰파이어 실루엣으로, 색상은 화이트·블루·옐로우 등이며 소재는 얇고 부드러운 직물인 모슬린·린넨·실크 등을 사용하여 여성의 곡선라인이 도드라져 수수하면서도 관능적인 여성미가 나타났다(정홍숙, 2009).

<그림 5>은 슈미즈 가운(chemise gown)을 착용한 여성의 모습으로, 담백한 슈미즈 가운에 대비되는 컬러의 얇은 실크 트레인을 드레이프 잡아, 두 개의 드레스를 입은 것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Beatrice, B., 2013). 가운은 하이 웨이스트에 깊게 판 네크라인, 짧은 퍼프 슬리브, 스커트는 퍼지지 않고 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다. <그림 6>는 르카미에르 부인(Madame Recamier)의 초상으로, 슈미즈가운 위에 술을 착용하고 있다. 술(shawl)은 방한용 또는 장식용으로 애용된 것으로, 수를 놓아 장식했으며 그리스인이 키톤에 히마티온을 착용한 모양과 비슷하게 드레이프 잡아 걸쳤다(김민자 외, 2010).

이와 같이 1790-1820년에 등장한 네오클래식 스타일은 슈미즈 가운·트레인·술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스트레이트 실루엣에 화이트·블루·옐로우 등의 모슬린·린넨·실크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 스타일은 가운과 술을 드레이프·자수로 간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4) 로맨틱 스타일(1820-1870)

로맨틱 스타일(Romantic Style)은 나폴레옹 제국의 붕괴 이후에 지배계급들이 프랑스 혁명 이전의 구체제로 복귀를 희망하고 문학·음악·미술 등 생활전반에 낭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나타났다(고애란, 2008).

이 스타일은 허리를 조이기 위해 코르셋이 다시 나타났고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해 커다란 크리놀린 버팀대를 사용하였으며, 드롭 숄더에 부풀린 소매로 거대한 아워글래스 실루엣을 이루었다(정홍숙, 2009).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화이트부터 짙은 블루·레드·퍼플 등 환상적인 색조를 사용했으며, 여러가지 모티브가 프린트된 직물들로 풍부한 색채를 이루었다. 소재는 실크·벨벳·울·레이스 등 고급 소재를 많이 사용하여 화려한 여성미가 두드러졌다.

<그림 7>은 로맨틱 초기 스타일로, 길이가 짧

은 코르셋을 착용하였고 스커트의 단에 몇 겹의 러플로 장식하여 스커트의 폭이 넓어 보인다. 그리고 드롭 숄더의 소매 위쪽은 기교적인 프릴로 과장되게 부풀렸으며, 일직선으로 드러낸 네크라인에 여러 층의 레이스 띠와 리본을 달아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림 8>은 드레스가 닭장처럼 둥그렇게 퍼진 형태로, 소매는 파고다 슬리브를 하고 있다. 넓은 소매와 스커트에 곡선형태의 리본을 달아 장식하였다. <그림 9>는 드레스의 앞은 납작하고 양 옆과 뒤가 둥그렇게 부풀린 형태로, 뒤가 길어지면서 크리놀린의 유행이 절정에 달했던 1860년에는 스커트 밑단 길이가 10야드에 이르는 복식 사상 가장 거대한 스커트로 나타났다(김영옥, 안수경, 2010). 드레스의 넓어진 표면은 주로 러플, 리본과 프린지 등으로 호화롭고 과장되게 장식하였다.

이와 같이 1820-1870년에 나타난 로맨틱 스타일은 드레스·코르셋·크리놀린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관능적인 아워글래스 실루엣에 화이트·사파이어·레드 등의 실크·벨벳·울·레이스 등이 사용되었다. 이 스타일은 드레스와 슬리브를 러플·프릴·리본·프린지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스타일이 되도록 과장되게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5) 버슬 스타일(1870-1900)

버슬 스타일(Bustle Style)은 프랑스 제2공화정의 붕괴 이후에 급속도로 전개된 기계의 발달과 기술의 혁신으로 재봉틀의 보급과 합성염료의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량생산과 의복의 색상 다양화가 가능해지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부르주아들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람들이므로 거대한 스커트가 차츰 불편해졌고 그 결과, 크리놀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장식도 간소화되면서 스커트 앞은 납작하고 스커트의 부풀림이 옆과 뒤로 모아진 h형 실루엣을 이루었다(정홍숙, 2009). 색상은 주로 부드러운 파스텔 톤과 짙은 브라운, 퍼플 등이며, 상의와 하의의 색이나 패턴을 다르게 사용하였으며, 소재도 코튼·트윌·벨벳·실크 등으로, 두께와 촉감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버슬 스타일은 활동적이면서 부드러운 여성미가 표현되며, 프린세스라인의 원피

스와 투피스 수트로 구성된다(James, L., 2010).

<그림 10>은 크리놀린 스타일의 스커트 폭이 줄어들면서, 스커트의 단이나 트레인(train)이 뒤로 길어진 프린세스라인의 드레스이다. 오버스커트는 곡선과 사선으로 드레이프 시키며, 그 위에 다양한 형태의 리본과 술을 달아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리고 땅에 끌리는 드레스의 스커트 자락에는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코디언주름이나 맞주름을 잡은 더스트 러플(dust ruffle)을 달았다(신상옥, 2010). <그림 11>은 엉덩이 부분이 거의 직각이 될 정도로 강조된 드레스로, 버슬이라는 스커트 버팀대를 착용하고 스커트를 여러 겹 주름잡아 hips를 과장되게 부풀렸다. 이와 상대적으로, 보디스는 몸에 꼭 맞고 스탠딩 칼라에 손목길이나 팔꿈치길이의 타이트 슬리브로 구성되어 슬림했다. <그림 12>는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은 후기 버슬 스타일로, 전체적으로 부피가 감소된 투피스 수트이다. 투피스 수트는 hips를 강조하던 것에서 가슴을 강조하는 초점으로 바뀌면서 스커트

보다는 보디스에 장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디스의 소매는 주름 장식으로 부풀려 졌으며, 중심은 버튼을 사용하여 장식적이면서도 기능적이게 나타났다. 그리고 보디스의 가장자리는 브레이드·리본을 달아 깔끔하게 장식했다. 외출 시에 착용했던 재킷이나 케이프의 가장자리에도 동일한 장식을 하였으며, 모피 장식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1870-1900년에 등장한 버슬 스타일은 드레스·투피스 수트·재킷·케이프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hips를 강조하는 h형 실루엣에 파스텔·브라운·퍼플 등의 코튼·트윌·벨벳·실크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 스타일은 재킷과 케이프를 모피로, 오버스커트와 언더스커트를 드레이프·플리츠·프린지·리본 등으로, 투피스 수트를 브레이드와 버튼으로 기능적이면서 활동적인 스타일이 되도록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표 1>은 18세기와 19세기 여성 복식스타일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1> 로코코 스타일
서양복식문화사, p.245.
정홍숙, 2010.
서울 : 교문사



<그림 2> 로코코 스타일
서양복식문화사, p.225.
백영자 외, 2006.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그림 3> 폴로네즈 스타일
서양복식문화사, p.247.
정홍숙, 2010.
서울 : 교문사



<그림 4> 폴로네즈 스타일
서양복식문화사, p.248.
정홍숙, 2010.
서울 : 교문사



<그림 5> 네오클래식 스타일
패션:의상과 스타일의 모든 것.
p.171.
베아트리스 베른, 2013.
시그마북스



<그림 6> 네오클래식 스타일
서양의 복식문화와 역사, p.263.
고애란, 2008.
서울 : 교문사



<그림 7> 로맨틱 스타일
서양복식문화사, p.303.
정홍숙, 2010.
서울 : 교문사



<그림 8> 로맨틱 스타일
패션:의상과 스타일의 모든 것. p.197.
베아트리스 베른, 2013.
시그마북스



<그림 9> 로맨틱 스타일
서양복식사, p.258.
신상옥, 2010.
서울 : 수화사



<그림 10> 버슬 스타일
서양복식문화사, p.333.
정홍숙, 2010.
서울 : 교문사



<그림 11> 버슬스타일
패션:의상과 스타일의 모든 것, p.204.
베아트리스 베른, 2013.
시그마북스



<그림 12> 버슬스타일
서양복식문화사, p.337.
정홍숙, 2010.
서울 : 교문사

<표 1> 18세기와 19세기 여성 복식스타일의 특징

| 스타일 구분 | 로코코 스타일 (1715-1774) | 폴로네즈 스타일 (1774-1790) | 네오클래식 스타일 (1790-1820) | 로맨틱 스타일 (1820-1870) | 버슬 스타일 (1870-1900) | |
|-----------|--|---|---|--|---|--|
| 사회·문화적 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이 15세 마당 풍파두르 귀족 중심 직물공업 염색기술 로코코 양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이 16세 마리 앙투아네트 프랑스 혁명 부르주아 중심 코튼 기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폴레옹 1세 조세핀 귀족풍 근절 신고전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폴레옹 제국 붕괴 귀족 중심 낭만적 분위기 프린트 직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아르누보 양식 재봉틀 보급 합성염료 | |
| 특징 | 로브 볼랑과 로브 아 라 프랑세즈의 관능적이며 호화로운 스타일 | 로브 아 라 폴로네즈와 로브 아 라 랑글레즈의 화려하면서도 활동적인 스타일 | 드레스와 슈미즈 가운의 간결하고 직선적인 스타일 | 크리놀린 드레스의 관능적이며 화려한 스타일 | 버슬 드레스와 투피스 수트의 기능적이면서 활동적인 스타일 | |
| 조형적 특징 | 실루엣 | • 아워글래스 | • h | • 스트레이트 | • 아워글래스 | |
| | 색상 | • 옐로우 • 딥 레드 • 페일 블루 | • 퍼플 브라운 • 아이보리 • 레드 | • 화이트 • 블루 • 옐로우 | • 화이트 • 사파이어 • 레드 | • 파스텔 • 브라운 • 퍼플 |
| | 소재 | • 실크 • 레이스 • 모슬린 | • 실크 • 울 • 코튼 | • 모슬린 • 린넨 • 실크 | • 실크 • 벨벳 • 울 • 레이스 | • 코튼 • 트윌 • 벨벳 • 실크 |
| | 아이템 | • 로브 볼랑 • 로브 아 라 프랑세즈 • 코르셋 • 스티머커 • 파니에 | • 로브 아 라 폴로네즈 • 로브 아 라 랑글레즈 • 코르셋 • 페티코트 | • 슈미즈 가운 • 드레스 • 펠리스 • 숄 | • 드레스 • 맨틀 • 코르셋 • 크리놀린 • 언더스커트 | • 드레스 • 투피스 수트 • 코르셋 • 버슬 • 언더스커트 |
| | 장식 | • 러플 • 프릴 • 개더 • 리본 • 평면자수 • 플리즈 • 입체자수 • 브레이드 • 프린지 | • 드레이프 • 러플 • 프릴 • 입체자수 • 버튼 | • 개더 • 드레이프 • 평면자수 | • 러플 • 프릴 • 개더 • 레이스 띠 • 리본 • 프린지 | • 드레이프 • 플리즈 • 리본 • 브레이드 • 버튼 • 깃털, 띠 |
| 대표 스타일 | | | | | | |

III. 18세기와 19세기 여성 복식에 나타난 장식 분석

본 장에서는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편찬한 도록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 과 『NINE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 의 근접 촬영 사진 164점을 주름 장식 57점, 자수 장식 35점, 부착 장식 73점으로 분류하여 18세기와 19세기 여성 복식에 나타난 장식의 조형적 특징과 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1. 주름 장식

1) 개더

개더(Gather)는 원단을 흠질하거나 재봉틀로 박은 후 실을 잡아당겨 천을 여러 겹으로 겹쳐 웨맨 잔주름으로, 원단의 세로 조직에 따라 개더의 흐름과 떨어짐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얇은 저지·실크·울로 만든 개더는 부드럽게 떨어지며, 두께감 있는 브로케이드·태피터·코튼으로 만든 개더는 무게감 있고 기품 있게 떨어진다(Patrick J. I., 2004).

정희경과 이명희(2004)의 연구에 의하면, 개더는 평면이었던 직물에 3차원적인 형태의 부피감을 나타내며 직선·방사선·곡선·파상선 등으로 표출된다. 신체의 동적 운동에 따라 반복된 선이 유동적이고 생동적인 느낌을 연출하며, 리듬감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 과 『NINE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 에서 개더는 총 22점으로, 색 백 가운 2점, 가운 5점, 만투아 3점, 데이 드레스 3점, 드레스 7점, 이브닝 드레스 2점이다.



<그림 13> 1780s Dutch, Gown

개더는 로코코 스타일, 폴로네즈 스타일, 네오 클래식 스타일, 로맨틱 스타일, 버슬 스타일 등 모든 스타일에서 나타났다. 아이보리·골드·화이트·블루·레드·옐로우·그린 색상의 실크·린넨·레이스·새틴·다마스크·코튼·모슬린으로 된 가운·만투아·드레스에 이용되었다. 주로 네크라인·소매·보디스·스커트 등 다양한 형태가 되고, 개더를 잡는 양과 위치에 따라 스트레이트·아워글래스·버슬 등의 실루엣이 결정되면서 입체적인 구조로 공간을 형성하였다.

<그림 13>은 1780년대의 네덜란드 가운이다. 이 가운은 골드 폴카 도트가 프린트된 아이보리의 코튼을 사용한 폴로네즈 스타일이다. 보디스는 밀착되고 스커트의 허리부분은 잔주름을 잡아 부풀려서 hips를 강조하는 버슬 실루엣을 형성하면서 부피감을 표현한다. <그림 14>는 1830-1834년 영국 드레스이다. 이 드레스는 허리를 가늘게 조이고 스커트와 소매를 벨 모양으로 부풀려 아워글래스 실루엣을 이루며, 옐로우·아이보리·그린 색상에 기하학적 패턴이 눈에 띄는 코튼 소재로 된 로맨틱 스타일이다. 드레스의 소매와 스커트 허리부분을 흠질하여 나타난 주름은 여러 겹으로 겹쳐지면서 공간을 만들어 드레스에 부피감을 준다.

2) 플리츠

플리츠(Pleats)는 원단의 가장자리를 치수에 맞추어 만든 주름이 스티치로 고정된 직선적 주름을 말한다(Colette, W., 2011). 플리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늘과 실 이외에도 열·스팀과 압력이 필요하다. 플리츠는 소재의 두께와 무게에 따라 다양한 동적 효과를 보이며, 선의 넓이·수·길이·모양에 따라 느낌이 다르게 나타난다(Patrick J. I., 2004; 타오샤, 권혜숙, 2012).

플리츠는 주름의 형태와 간격, 주름을 잡는 방



<그림 14> 1830-1834 British, Dress



<그림 15> 1760-65 English, Sack-back gown



<그림 16> 1885 British, Day dress



<그림 17> 1775 English, Polonaise gown



<그림 18> 1885 Paris, Bustle dress

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한쪽 방향으로 좁게 접은 나이프 플리즈(knife pleats), 박스 플리즈를 뒤집었을 때 나오는 맞주름인 인버티드 플리즈(inverted pleats), 윗부분을 넓게 나오도록 접어 박스형의 주름인 박스 플리즈(box pleats), 지그재그 형태에 0.5 ~ 1.5cm 정도 폭의 주름으로 아코디언 주름과 흡사한 아코디언 플리즈(accordion pleats) 등이 있다.(패션 큰사전 위원회, 1999)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과 『NINE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에서 플리즈는 총 27점으로, 색 백 가운 5점, 가운 4점, 만투아 1점, 재킷 2점, 펠리스 1점, 데이 드레스 9점, 드레스 5점이다.

플리즈는 로코코 스타일과 로맨틱 스타일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으며, 폴로네즈 스타일, 네오클래식 스타일, 버슬 스타일 등에서도 나타났다. 화이트·브라운·아이보리·옐로우·블루 색상의 실크·린넨·세틴·코튼·다마스크·쉬폰으로 된 가운·만투아·재킷·펠리스·드레스에 이용되었다. 특히 로코코 스타일과 로맨틱 스타일에서는 스커트·가운의 뒷부분이 되어 무게감 있게 떨어지면서, 수직적 입체감과 풍성한 부피감으로 과장된 실루엣을 이루었다.

<그림 15>는 1760-65년 영국의 색 백 가운이다. 이 가운은 허리를 가늘게 조이고 스커트를 파니

에로 부풀려 아워글래스 실루엣을 이루며, 색상은 화사한 옐로우에 소재는 섬세한 패턴이 있는 실크를 사용한 로코코 스타일이다. 실크 가장자리를 네크라인 뒷면에 맞춰 두 겹으로 접은 박스 플리즈는 어깨에 스티치로 고정되어 직선을 이루면서 아래로 부드럽게 떨어지는데, 이 직선의 반복으로 음영효과가 두드러지면서 가운데 풍성한 부피감을 준다. <그림 16>은 1885년 영국의 버슬 스타일 드레스이다. 이 드레스는 힙 부분이 강조된 h형 실루엣을 이루며, 블루 바탕에 브라운 도트 패턴이 있는 코튼 소재가 특징이다. 코튼 가장자리를 한쪽 방향으로 좁게 접은 나이프 플리즈는 스커트 앞에 동일한 간격으로 여러 층을 이루고 있어, 스커트에 수직적 입체감을 준다.

3) 드레이프

드레이프(Drape)란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일정한 형식을 취하지 않은 부정형 주름으로, 닥트와 같은 봉제기술이 있기 이전에 의복을 만드는 기법으로 고대 그리스 의복에 사용이 되었다(조규화, 1995).

남기은(2008)의 연구에 따르면, 드레이프는 반복적인 선과 면에 의해 나타나며 무수히 많은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는 인체의 형태와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여 형태를 변형시키고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과 『NINE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에서 드레이프는 총 8점으로, 가운 3점, 만투아 2점, 데이 드레스 3점이다.

드레이프는 폴로네즈 스타일과 버슬 스타일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로코코 스타일에서도 나타났다. 브라운·그린·레드·아이보리 색상의 태피터·실크·코튼·울로 된 가운·만투아·드레스에 이용되었다. 대부분 스커트 형태가 되어 힙을 강조하는 실루엣을 형성하였다.

<그림 17>은 1775년 영국의 폴로네즈 스타일 가운이다. 이 가운은 엉덩이가 강조된 버슬 실루엣이며, 아이보리·그린·레드 색상의 스트라이프가 프린트된 실크 소재가 특징이다. 가운을 루프로 끌어올린 드레이프는 힙의 양옆과 뒤에 일정하지 않은 부드러운 주름을 만드는데, 이 주름은 스커트의 형태를 풍성하고 부피감 있게 만든다.

<그림 18>은 1885년 파리의 데이 드레스이다. 이 드레스는 밝고 어두운 브라운의 실크와 울 소재로 된 버슬 스타일이다. 스커트의 앞과 뒤에 생긴 드레이프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주름을 드리워, 스커트 앞과 뒤의 공간을 확장시키면서 인체의 형태와 움직임에 따라 유동적인 볼륨감을 준다.

이와 같이 주름 장식은 네크라인·소매·보디스·스커트·가운의 형태가 되면서 부피성이 나타났다. 특히 스커트의 거대한 부피는 남녀의 성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던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의 배와 엉덩이를 과장되게 부풀림으로써 출산이라는 여성의 성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성성과 과장성이 표출되었다.

2. 자수 장식

1) 평면 자수

자수(Embroidery)는 직물·편물·망·피혁·종이류 등의 표면에 다채로운 색실·자수용 명주실·부드러운 면사·금속사 등을 사용해서 수를 놓는 것으로, 하나의 점에서 시작하여 공간으로 지각된다. 평면 자수는 편평한 원단위에 놓은 자수로, 거의 모든 자수가 이에 포함된다(편집부, 1997). 자수는 사용하는 천·실의 소재·스티치 방법·발생 국

가·시대에 따라 다르며, 종류에 따라 표면감촉의 효과·패턴·색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조규화, 이희승, 2004). 이나영(2009)의 연구에 따르면, 평면자수는 부분이나 전체에 점·선·면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기법과 소재의 자유로운 혼합사용에 따라서 시선을 자극하는 디자인의 포인트가 나타나 의복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과 『NINE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에서 평면자수는 총 28점으로, 색 백 가운 1점, 가운 4점, 만투아 5점, 재킷 2점, 웨이스트코트 1점, 스티머커 4점, 오버스커트 1점, 이브닝 코트 1점, 이브닝 드레스 4점, 드레스 3점, 데이 드레스 1점, 숄 1점이다.

평면자수는 특히 로코코 스타일과 네오클래식 스타일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으며, 폴로네즈 스타일, 로맨틱 스타일, 버슬 스타일 등에서도 나타났다. 실버·그린·레드·블루·옐로우·화이트·오렌지·블랙·골드 색상의 실을 사용하여 가운·만투아·재킷·스티머커·오버스커트·코트·드레스·숄에 꽃·나뭇잎·줄기·지오메트릭·격자·새·곤충·열매·셀·소용돌이·고리 등의 무늬를 만들었다. 즉, 다양한 색상으로 패턴을 구성하여 소재 표면에 변화를 주었다.

<그림 19>는 1740-45년 영국의 만투아이다. 이 만투아는 페티코트로 양 옆이 부풀려진 아워클래스 실루엣으로, 아이보리에 실크 소재로 된 로코코 스타일이다. 만투아 전체표면에 블루·레드·옐로우·그린·실버 등의 다양한 컬러의 실크 사를 사용해서 새틴 스티치와 프렌치 노트 스티치기법으로 모란·장미·양귀비·앵초·수선화·나팔꽃·튤립·나뭇잎·격자문양 등의 수를 놓았다. 이 자수는 다양한 컬러의 실과 서로 다른 스티치 기법을 어우러지게 사용하여 빛의 반사에 따른 독특한 재질감으로 시각적 강조 효과를 준다. <그림 20>은 1801-11년 런던의 숄과 가운이다. 가운은 스트레이트 실루엣이며, 화이트 모슬린 소재로 된 수수한 네오클래식 스타일이다. 가운을 착용한 뒤에 어깨와 팔을 감싸는 숄은 옐로우 실크 소재로 수수한 네오클래식 스타일을 강조하고 화사하게 만든다. 가운의 스커트에 화이트 코튼 사를 사용해서 체인스티치로 곡선의 나뭇잎과 덩굴을 반복적으로 수놓았고, 숄의 양 끝에 레드·그린·옐로우·

골드 등의 실크 사를 사용해서 카슈미르 전통 문양인 덩불과 벨 모양의 꽃을 수놓았다. 이 자수는 여러 가지 색상과 소재의 실로 옷의 표면에 점·선·면을 나타내면서, 평면을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2) 퀼팅

퀼팅(Quilting)은 두 장의 천 사이에 솜이나 모·면·깃털 등의 충전재를 물리적으로 넣은 뒤, 위에서 선이나 원의 패턴으로 러닝 스티치나 백 스티치를 하여 다양한 모양을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조규화, 이희승, 2004). 기능적인 면에서의 퀼팅은 걸감·퀼팅용 솜·안감을 고정함으로써 각각을 그냥 합쳐놓았을 때보다 더욱 안정적인 원단으로 만든다. 장식적인 면에서의 퀼팅은 겹쳐 있는 원단을 점선이나 실선으로 스티치하여 부드럽게 움푹 들어간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다. 퀼팅한 원단은 부피와 보온성이 증가하며 원단의 성분과 재질, 작업자의 솜씨, 전체적으로 작업한 스티치의 종류와 양에 영향을 받는다(Colette, W., 2011).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과 『NINE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에서 퀼팅은 총 7점으로, 색백 가운 1점, 가운 1점, 스터머커 1점, 돌먼 1점, 드레스 2점, 재킷 1점이다.

퀼팅은 로코코 스타일, 네오클래식 스타일, 로

맨틱 스타일, 버슬 스타일에서 나타났는데, 아이보리·화이트·블루·크림 색상의 실을 사용하여 가운·스터머커·돌먼·드레스·재킷에 나선형·지오메트릭·Z자형·마름모·꽃·과일 등의 무늬를 만들어 소재 표면을 장식하였다.

<그림 21>은 1775-80년 영국의 가운이다. 이 가운은 아워글래스 실루엣으로, 색상은 아이보리이고 소재는 린넨을 사용한 로코코 스타일이다. 가운의 스커트 가장자리에 동일컬러의 코튼사로 러닝 스티치하여, 나선형의 꽃과 과일 모티프를 나타냈다. 이 퀼팅은 유연한 라인형의 코디드 퀼팅(corded quilting)으로 이탈리아 퀼팅(italian quilting)이라고도 하는데, 직물 사이에 부드러운 끈 형태의 코드(cord)를 삽입하여 표면에 변화를 주는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같은 색상의 실을 사용하여 장식함으로써 부드럽고 은은한 무늬를 구성하면서 소재에 시각적인 변화를 주었다. <그림 22>은 1780년대 폴로네즈 스타일의 영국 재킷이다. 이 재킷은 허리선이 좁고 길며, 허리선 아래부터는 네 조각으로 나뉘어져 다이아몬드 형을 이루고 있다. 색상은 화이트이고, 소재는 작은 식물 모티프가 프린트된 코튼이다. 재킷의 전체 표면에는 퀼팅으로 장식되었는데, 이 퀼팅을 와디드 퀼팅(wadded quilting), 혹은 잉글리시 퀼팅(english quilting)이라고 한다. 프린트된 코튼 사이에 솜을 넣고 전체 표면에 밝은 린넨 사로 러닝 스티치하여 마름모 형태의 패턴을 구성하였다. 이는 소재



<그림 19> 1740-45 English, Mantua



<그림 20>1801-11 London, Gown and Shawl



<그림 21> 1775-80 English, Gown



<그림 22> 1780s English, Jacket

에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이 자수 장식은 가운·만투아·재킷·스터머커·오버스커트·코트·드레스·술·돌먼의 무늬가 되면서 평면성이 나타났다. 특히 지나치게 화려한 무늬는 계급구분이 뚜렷했던 당시 사회에서는 의복 전체를 다채로운 색상의 실크사로 자수 장식함으로써 자신의 신분과 부를 과시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과장성과 사치성이 표출되었다.

3. 부착 장식

1) 리본

리본(Ribbon)은 비단이나 인견 등으로 만든 좁고 긴 띠의 총칭으로, 가장자리 테두리가 꼬여 있어서 풀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박기완, 1984). 최주영(2007)은 리본을 기존의 한정된 표현 방법에서 탈피하여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식적인 효과를 극대화 시켜준다고 밝혔다. 차혜인(2012)은 리본이 선적인 장식으로서, 장식의 느낌이나 아름다움을 재료의 윤곽선에서 찾게 되며 독립적으로 위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색채의 대비로 명확한 형태가 드러나면서 명료한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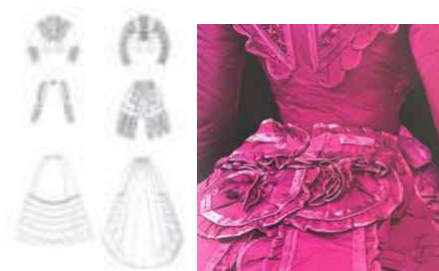


<그림 23> 1750s English, Mantu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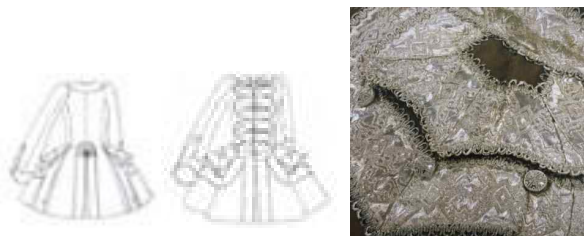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 과 『NINE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 에서 리본은 총 25점으로, 색 백 가운 1점, 가운 3점, 만투아 1점, 데이 드레스 10점, 이브닝 드레스 6점, 산책용 드레스 1점, 드레스 2점, 돌먼 1점이다.

리본은 특히 로맨틱 스타일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으며, 로코코 스타일, 폴로네즈 스타일, 네오클래식 스타일, 버슬 스타일 등에서도 나타났다. 리본은 그린·마젠타·아이보리·화이트·연핑크·블루 색상의 실크·레이스·코튼·벨벳·새틴·쉬폰·모슬린으로 된 밴드·보우·로제트 등 입체감 있는 형태를 띄며, 가운·만투아·돌먼·드레스의 매끈한 표면에 덧붙여지면서 복식은 장식적인 효과가 극대화 되었다.

<그림 23>은 1750년대의 영국 만투아이다. 이 만투아는 허리는 코르셋으로 가늘게 조이고 스커트를 파니에로 부풀려 아워글래스 실루엣을 이루며, 연핑크 색상의 실크 소재를 사용하였다. 여기에 소매를 섬세하고 아름답게 장식하여 호화로운 로코코 스타일을 완성하였다. 연핑크 색상의 실크로 된 심플한 만투아에 그린·연핑크·아이보리가 화려하게 뒤섞인 보빈 레이스를 가늘고 좁은 밴드형으로 만들어 소매 가장자리에 여러 겹 정교하게 부착하여 소매 형태와 스타일에 변화를 주었다. <그림 24>는 1869-70년의 파리 드레스이



<그림 24> 1869-1870 Paris, Dress



<그림 25> 1750s English, Riding jacket



<그림 26> 1885-86 English, Riding jacket

다. 이 드레스는 허리는 코르셋으로 가늘게 조이고 크리놀린으로 스커트를 과장되게 부풀린 아워클래스 실루엣이며, 비비드한 마젠타 색상의 실크 소재를 사용한 로맨틱 스타일이다. 광택이 강한 마젠타의 새틴으로 로제트 형태를 만들어 힙 위에 부착하고, 드레스의 가장자리를 직선과 곡선형으로 장식하여, 드레스에 볼륨감을 더해주고 장식선을 두드러지게 표현했다.

2) 브레이드

브레이드(Braid)는 세 가닥 또는 그 이상의 실이나 천으로 엮거나 땀은 끈으로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안병기, 2003). 김지영(2004)은 브레이드가 가는 선의 성격인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 직선과 곡선을 평면과 입체의 형태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주로 밑단·칼라·허리부분 등 의복의 일부에 라인 형태로 사용되어 디자인 선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과 『NINE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에서 브레이드는 총 9점으로, 색 백 가운 1점, 만투아 1점, 재킷 2점, 라이딩 재킷 1점, 데이 드레스 3점, 드레스 1점이다.

브레이드는 로코코 스타일, 네오클래식 스타일, 로맨틱 스타일, 버슬 스타일에서 나타났는데, 실버·그레이·화이트·블루·브라운·옐로우·핑크 색상의 셔닐·와이어·모헤어·실크·캔버스로 된 까

마귀 밧·소용돌이·나뭇잎 등 명료한 형태로, 만투아·재킷·드레스·가운에 부착되었다.

<그림 25>는 1750년대 영국의 라이딩 재킷이다. 이 재킷은 허리 아래부터 플레어 지는 아워클래스 실루엣으로, 색상은 브라운에 소재는 실크로 된 로코코 스타일이다. 실버사로 조밀하게 땀은 브레이드는 재킷의 보디스에 넓고 화려하게 나타났다. 이 실버 브레이드는 섬세하고 정교하게 장식되어 독특한 재질감과 시각적 무게감을 주어, 부드럽고 매끈한 실크와는 대비를 이루지만, 이질적인 소재의 성질이 어우러지면서 호화로운 스타일의 재킷을 완성하였다. <그림 26>은 1885-86년의 영국 재킷이다. 이것은 남성의 코트에서 영감을 받은 실용적인 것으로, 짙은 블루의 플란넬 소재로 된 버슬 스타일의 재킷이다. 그레이 모헤어로 땀은 브레이드는 재킷의 보디스 중심에 규칙적으로 반복 나열되어,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브레이드는 까마귀 밧모양으로 부드럽고 매끈한 플란넬 소재로 된 심플한 형태의 재킷에 부착되어 기능적이면서 장식적인 스타일의 재킷을 완성하였다.

3) 프린지

프린지(Fringe)는 실이나 끈 등으로 만든 술 장식으로, 실을 사용하는 프린지와 직물의 울을 풀어서 하는 프린지가 있다. 실을 사용하는 프린지는 대부분 모사·견사·금 은사 등을 사용하며, 몇



<그림 27> 1760s English, Mantua and Stomacher



<그림 28> 1855-1857 British, Promenade dress



<그림 29> 1774 English, Polonaise gown



<그림 30> 1890-1893 German, Tailored jacket

올씩 코바늘로 천에 걸어 매듭을 지어 장식한다 (패션큰사전 위원회, 1999).

김은영 (2001)의 연구에 의하면, 술 장식이 길이와 소재에 따라 움직임의 시각효과가 차이가 나타난다. 길이가 긴 술 장식은 하늘거리며 자유롭게 움직이고 짧은 길이의 술장식은 움직이는 범위가 적고 제한적이다. 장식의 주된 면과 다른 색으로 부착된 술 장식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시각효과를 가져오지만 전체와 유사 또는 같은 계열의 술 장식을 사용한 경우는 시선의 방향을 전체로 집중시켜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프린지를 따로 제작하여 부착하는 방법은 소재나 색채의 제한된 범위를 확대시켜 주고,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표현 시도를 통하여 독특하고 새로운 장식적 표현 요소로 나타낼 수 있다.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과 『NINE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에서 프린지는 총 18점으로, 색 백 가운 5점, 페티코트 1점, 스테머커 1점, 만투아 1점, 펠리스 1점, 돌먼 2점, 오버스커트 1점, 이브닝 드레스 1점, 산책용 드레스 2점, 데이 드레스 3점이다.

프린지는 로코코 스타일과 로맨틱 스타일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폴로네즈 스타일, 네오클래식 스타일, 버슬 스타일에서도 나타났다. 실버·레드·마룬·그린·아이보리·옐로우·블랙·블루·화이트 색상의 실크·스팽글·메탈·린넨·셔닐로 된 원형 테슬과 나뭇잎·꽃 모양의 플라이 형태로 별도 제작된 프린지가 가운·페티코트·스테머커·만투아·펠리스·돌먼·오버스커트·드레스에 부착되었다.

<그림 27>은 1760년대 로코코 스타일의 영국 만투아와 스테머커이다. 이 만투아와 스테머커는 아이보리 색상의 실크를 사용하였고, 아워글래스 실루엣을 이룬다. 이는 18세기 중기 여성의 복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이 프린지 장식이 잘 나타나 있다. 레드·화이트·옐로우 실크 사로 혼합한 짧은 프린지를 긴 끈에 연결 지어 보디스와 소매의 표면에 부착하였다. 만투아와 스테머커를 장식한 이 짧은 플라이 프린지는 여러 색실이 섞여 풍부한 색감을 만들어 냄으로써 관능적인 아워글래스 실루엣과 호화로운 스타일을 강조하였다. <그림 28>은 1855-57년의 영국 드레스이다.

이 드레스는 돔 모양의 크리놀린 버팀대를 착용하여 나타난 아워글래스 실루엣으로, 그린 컬러의 벨벳 소재로 된 로맨틱 스타일이다. 그린 실크사로 된 프린지는 드레스의 보디스와 스커트 전체에 부착되어 기하학적인 패턴을 구성하여 율동감을 더해주면서 광택 나는 벨벳 드레스에 화려함을 배가시켰다. 특히 스커트 전면에 장식된 프린지는 시선의 방향을 스커트로 집중시켜 과시적인 실루엣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4) 버튼

버튼(Button)은 의복을 여미는데 사용하는 복식 부품으로, 중앙에 구멍이 있거나 뒷면에 고리가 있으며, 모양은 원형, 삼각형, 직사각형, 타원형 등이 있고 재료는 뼈·쇠·유리·플라스틱·천·조개 껍질·보석류·나무 등으로 다양하다 (패션큰사전 위원회, 1999). 과거 유럽에서는 금·은·보석으로 버튼을 만들어 자신의 지위·권력·소속을 나타냈고, 여성복에서는 19세기 이후 테일러드 복장을 착용하면서부터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유송옥 외, 2006).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과 『NINE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에서 버튼은 총 14점으로, 재킷 1점, 웨이스트 코트 1점, 라이딩 재킷 1점, 가운 1점, 데이 드레스 9점, 산책용 드레스 1점이다.

버튼은 버슬 스타일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로코코 스타일, 폴로네즈 스타일, 로맨틱 스타일에서도 나타났다. 버튼은 골드·옐로우·블랙·레드·블루·아이보리·브라운 색상의 실크·포일·플란넬·진주·메탈·골제·울로 된 구·납작하거나 볼륨감 있는 원형형태로, 재킷·코트·드레스에 부착되어 옷을 여미는 용도 외에도 다른 재질과 색채로 옷을 장식함으로써 큰 시각적 효과를 나타냈다.

<그림 29>는 1774년 폴로네즈 스타일의 영국 가운이다. 이 가운은 밝은 브라운의 태피터 소재로 힘이 강조된 버슬 실루엣을 이룬다. 가운의 보디스는 타이트하고 스커트는 볼륨감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소재와 동일한 밝은 브라운 태피터로 감싼 버튼은 허리 뒤에 양쪽으로 부착되어 긴 스커트를 끌어올려 고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스커트 밑단의 루프를 끌어올려 버튼에 감



<그림 31> 1895 French, Cape



<그림 32> 1885 French, Dolman

게 되면 스커트에는 자연스러운 드레이프가 형성되고, 길이가 짧아지며 볼륨감이 강조되면서, 여성의 움직임을 편리하게 한다. <그림 30>은 1890-93년의 독일 재킷이다. 이 재킷은 남성들이 착용했던 웨이스트 코트를 모방한 것으로, 브라운의 트위드 소재로 된 버슬 스타일이다. 아이보리와 브라운이 혼합된 납작한 원형의 진주 버튼은 트위드 재킷의 보디스 중심에 나타났다. 광택이 나고 매끈한 진주와 표면이 거칠게 표현된 트위드가 대비를 이루면서 시각적 단조로움을 벗어나는 효과를 준다.

5) 깃털·피

깃털(Feather)은 조류의 털로, 같은 새의 것이라도 부분에 따라서 색·질감 등이 다르다. 반면 피(Fur)는 가늘고 부드러운 포유류의 털로, 대개 헤어의 이중 코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층은 짧고 부드럽고 길이 있는 헤어이며, 다른 층은 이 헤어를 보호하는 길고 부드러우며 보다 뽀뽀한 보호 헤어이다. 피는 보통 매우 부드럽고 실의 표면으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패션컨사전 위원회, 1999).

이경옥(2009)의 연구에 따르면, 깃털과 피는 주로 모자·머리장식·케이프 등의 부분이나 전체에 사용되는데, 깃털은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사방으로 흔들리며 우아한 곡선과 풍부한 재질감이 빛을 반사시켜 화려한 표면을 연출하며, 피는 풍부한 재질감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과 『NINE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에서 깃털·피는 총 7점으로, 맨틀 1점, 돌먼 4점, 케이프 2점이다.

깃털과 피는 로맨틱 스타일과 버슬 스타일에서 나타났다. 화이트·크림·블랙·그린·브라운 색상의 다운·폭스·수탉의 깃털·황새의 깃털·밍크·공작

의 깃털이 사용되었는데, 직선형·계단형·방사형으로 맨틀·돌먼·케이프에 부착되거나, 돌먼·케이프 자체가 되어 화려한 표면을 연출하였다.

<그림 31>은 1895년 프랑스의 케이프이다. 이 케이프는 버슬 스타일의 드레스 위에 착용하는 것으로, 수탉의 블랙과 그린 컬러 깃털로 장식하였다. 케이프의 보디스는 짧은 털을 사용하여 계단형으로, 소매는 긴 털을 사용하여 방사형으로 표현했다. 깃털의 크기와 질감을 고려하여 케이프의 구성을 다르게 표현하였다. <그림 32>은 1885년 프랑스의 돌먼이다. 이 돌먼은 크림 컬러의 실크에 벨벳으로 깃털의 패턴을 넣은 것이 특징이고, 힙에 볼륨이 들어간 버슬 스타일이다. 돌먼의 네크라인과 소매·밑단을 따라서 화이트 폭스와 크림 셔닐 프린지를 겹쳐 직선형으로 부착한 것으로, 광택이 나는 실크 프린지와 부피감이 있는 피가 조화를 이루면서 화려하고 볼륨감 있는 돌먼을 표현했다.

이와 같이 부착 장식은 재킷·코트·가운·페티코트·스터머커·만투아·펠리스·맨틀·돌먼·케이프·오버스커트·드레스에 이질적인 요소가 덧붙여지면서 혼성이 나타났다. 이것은 신분이 엄격히 구분되었던 당시 사회에서는 복식에 진귀한 소재를 사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과 힘을 과시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과장성과 사치성이 표출되었다.

<표 2> 18세기와 19세기 여성 복식에 나타난 장식의 특성

| 장식 | 주름(57) | | | 자수(35) | | 부착(73) | | | | | |
|--------|-----------------------|--------------------------|---------------------|-----------------------|--|-------------------------|------------------------|--------------------------|-----------------------------------|--------------------------|------------------------------|
| | 개더 (22) | 폴리츠 (27) | 드레이프 (8) | 평면 (28) | 컬팅 (7) | 리본 (25) | 브레이드 (9) | 프린지 (18) | 버튼 (14) | 깃털·피 (7) | |
| 정의 | 홈걸로 오그린 주름 | 직선으로 접은 주름 | 부정형의 주름 | 편평한 원단 위에 놓은 자수 | 층전재를 넣은 원단에 놓은 자수 | 천으로 만든 좁고 긴 띠 부착 | 실, 천으로 엮거나 땀은 끈 부착 | 실, 끈으로 만든 술 부착 | 여미는 부품 부착 | 조류, 포유류의 털 부착 | |
| 스타일 | 로코코 폴로네즈 네오클래식 로맨틱 버슬 | 로코코 폴로네즈 네오클래식 로맨틱 버슬 | 로코코 폴로네즈 버슬 | 로코코 폴로네즈 네오클래식 로맨틱 버슬 | 로코코 네오클래식 로맨틱 버슬 | 로코코 폴로네즈 네오클래식 로맨틱 버슬 | 로코코 네오클래식 로맨틱 버슬 | 로코코 폴로네즈 네오클래식 로맨틱 버슬 | 로코코 폴로네즈 로맨틱 버슬 | 로맨틱 버슬 | |
| 진행적 장식 | 아이템 | 가운 만투아 드레스 | 가운 만투아 재킷 펠리스 드레스 | 가운 만투아 드레스 | 가운 만투아 재킷 스테머커 오버스커트 코트 드레스 술 | 가운 스테머커 돌먼 드레스 재킷 | 가운 만투아 돌먼 드레스 | 만투아 재킷 드레스 가운 | 가운 페티코트 스테머커 만투아 펠리스 돌먼 오버스커트 드레스 | 재킷 코트 드레스 | 맨틀 돌먼 케이프 |
| | 형태 | 네크라인 소매 보디스 스커트 | 보디스 스커트 가운 | 스커트 | 꽃 나뭇잎 줄기 지오메트릭 격자 새 곤충 열매 셀 모양 소용돌이 고리 | 나선형 지오메트릭 Z자형 마름모형 꽃 과일 | 밴드 보우 로제트 곡선형 직선형 | 까마귀 발 소용돌이 곡선형 | 플라이 원형 테슬 나뭇잎과 꽃 모양의 플라이 직선형 | 구 납작한 원형 볼륨감 있는 원형 | 직선형 계단형 방사형 케이프 돌먼 |
| | 색상 | 아이보리 골드 화이트 블루 레드 옐로우 그린 | 화이트 브라운 아이보리 옐로우 블루 | 브라운 그린 레드 아이보리 | 실버 그린 레드 블루 옐로우 화이트 오렌지 블랙 골드 | 아이보리 화이트 블루 크림 | 그린 마젠타 아이보리 화이트 연핑크 블루 | 실버 그레이 화이트 블루 브라운 옐로우 핑크 | 실버 레드 마룬 그린 아이보리 옐로우 블랙 블루 화이트 | 골드 옐로우 블랙 레드 블루 아이보리 브라운 | 화이트 크림 블랙 그린 브라운 |
| | 소재 | 실크 린넨 레이스 새틴 다마스크 코튼 모슬린 | 실크 린넨 새틴 코튼 다마스크 쉬폰 | 태피터 실크 코튼 울 | 실크 셔닐 시퀸 코튼 울 | 실크 코튼 새틴 모슬린 린넨 | 실크 레이스 코튼 벨벳 새틴 쉬폰 모슬린 | 셔닐 와이어 모헤어 실크 캔버스 | 실크 스팅글 메탈 린넨 셔닐 | 실크 태피터 포일 플란넬 진주 메탈 골재 울 | 다운 폭스 수탉깃털 황새깃털 멍크 공작깃털 가금깃털 |
| 특성 | 부피성 | | | 평면성 | | 혼성 | | | | | |
| 미적 특성 | 여성성 | | | 사치성 | | 과장성 | | | | | |
| 대표장식 | | | | | | | | | | |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18세기와 19세기 여성 복식스타일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장식 방법을 도출한 후, 18세기와 19세기 여성 복식에 나타난 장식의 조형적 특징과 미적특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와 19세기 여성 복식스타일을 살펴본 결과, 로코코 스타일은 로브·언더스커트·스터머커에 러플·프릴·리본·프린지 등으로 장식하여 관능적인 아워클래스 실루엣을 강조하였고, 데콜타주에 러플·프릴·리본 등으로, 슬리브에 여러 겹의 앙가장트·파발라·자수 등으로 섬세하고 아름답게 장식하여 호화로운 스타일을 부각시켰다.

폴로네즈 스타일은 페티코트에 프릴과 러플 등으로, 오버스커트에 드레이프·잔주름 등으로 장식하여 활동적인 h 실루엣을 강조하였고, 데콜타주와 슬리브에 프릴과 러플 등으로 장식하여 화려한 스타일을 완성하였다.

네오클래식 스타일은 가운과 술에 드레이프와 자수 등으로 간단하게 장식하여 스트레이트 실루엣을 강조하는 간결하고 직선적인 스타일을 이루었다.

로맨틱 스타일은 드레스에 러플·프릴·리본·프린지 등으로 장식하여 관능적인 아워클래스 실루엣을 강조하였고, 슬리브에 러플·프릴·리본·프린지 등으로 과잉 장식하여 화려한 스타일을 부각시켰다.

버슬 스타일은 오버스커트에 드레이프·폴리츠·프린지·리본 등으로 장식하여 h 실루엣을 강조하였고, 재킷과 케이프에 모피로, 투피스 수트에 브레이드와 버튼으로 장식하여 기능적이면서 활동적인 스타일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스타일에 나타난 주요 장식 방법으로는 개더·폴리츠·드레이프 등의 주름 장식, 평면 자수·퀵팅 등의 자수 장식, 리본·브레이드·프린지·버튼·깃털과 퍼 등의 부착 장식이 있다.

둘째, 18세기와 19세기 여성 복식에 나타난 장식의 조형적 특징과 미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름 장식은 개더가 로코코·폴로네즈·네오클래식·로맨틱·버슬 등 모든 스타일에 이용되어 네크라인·소매·보디스·스커트로, 폴리츠도 모

든 스타일에 이용되어 보디스·스커트·가운으로, 드레이프는 로코코·폴로네즈·버슬 스타일에 이용되어 스커트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름 장식은 가운·만투아·재킷·펠리스·드레스의 형태를 이루게 되면서 부피성이 나타났다. 특히 거대하게 부풀려진 스커트에서는 여성성과 과장성과 같은 미적 특성이 강하게 표출되었는데, 이것은 남녀의 성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던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배와 엉덩이를 과장되게 부풀림으로써 출산이라는 여성의 성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수 장식은 평면 자수가 모든 스타일에 이용되어 꽃·나뭇잎·줄기·지오메트릭·격자·새·곤충·열매·셸·소용돌이·고리 무늬로, 퀵팅은 로코코·네오클래식·로맨틱·버슬 스타일에 이용되어 나선형·지오메트릭·Z자형·마름모·꽃·과일 무늬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수 장식은 가운·만투아·재킷·스터머커·오버스커트·코트·드레스·술·돌먼의 무늬를 만들게 되면서 평면성이 나타났다. 특히 만투아 전체표면에 다채로운 색상의 실크사로 모란·장미·양귀비·앵초·수선화·나팔꽃·튤립·나뭇잎·격자문양으로 자수한 장식에서는 과장성과 사치성이 두드러지게 표출되었는데, 이것은 계급사회에서 의복 전체를 지나치게 화려한 무늬로 자수 장식하여 자신의 신분과 부를 과시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착 장식은 리본이 모든 스타일에 이용되어 밴드·보우·로제트로, 브레이드는 로코코·네오클래식·로맨틱·버슬 스타일에 이용되어 까마귀 발·소용돌이·나뭇잎으로, 프린지는 모든 스타일에 이용되어 원형 테슬과 나뭇잎·꽃 모양의 플라이 형태로, 버튼은 로코코·로맨틱·버슬 스타일에 이용되어 구·납작하거나 볼륨감 있는 원형으로, 깃털과 퍼는 로맨틱·버슬 스타일에 이용되어 다운·폭스·수탉의 깃털·황새의 깃털·밍크·공작의 깃털이 직선형·계단형·방사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착 장식은 재킷·코트·가운·페티코트·스터머커·만투아·펠리스·맨틀·돌먼·케이프·오버스커트·드레스에 이질적인 요소가 덧붙여지면서 혼성이 나타났다. 특히 크림 컬러의 실크로 된 돌먼에 네크라인과 소매, 밑단에는 화이트 폭스를 부착한 장식에서는 과장성과 사치성이 강하게 표출되었는데, 이것은 신분이 엄격히 구분되었던 사회에서 복식에 진귀한 소재를 사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과 힘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18세기와 19세기 여성 복식에 나타난 장식은 스타일에 따라 장식의 방법이 다르며, 당대의 특정 스타일을 구성하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식은 20세기에서도 여성 복식 스타일에 맞게 변화되어 나타났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스타일의 다양화가 이루어진 20세기 여성복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여성 복식 스타일에 나타난 장식의 차이를 비교 연구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애란. (2008). *서양의 복식문화와 역사*. 서울 : 교문사.
- 김문환. (2000). *미학의 이해*. 서울: 문예출판사.
- 김민자. (2013). *복식미학*. 서울: 교문사.
- 김민자, 최현숙, 김윤희, 하지수, 최수현, 고현진. (2010). *서양패션 멀티 콘텐츠*. 서울: 교문사.
- 김양희, 김현주. (2012). 17~18세기 프랑스 서민 복식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6(9), 901-915.
- 김영옥, 안수경. (2010).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서울: 경춘사.
- 김은영. (2001). *술 장식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2004). *표면장식에 의한 의상디자인 연구: 봉제기법에 의한 입체적 표면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해순. (2002). *테넬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스티치 장식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수임. (2012). 발렌티노 드레스에 표현된 꽃이미지의 입체적 장식기법.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4(3), 37-49.
- 남기은. (2008). *복식에 나타난 드레이퍼리 기법과 미적가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경화, 김양희. (2014). 18세기 회화에 나타난 프랑스 궁정 여성복식의 색채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4(4), 83-100.
- 박기완. (1984). *복식용어사전*. 서울: 유신문화사.
- 배수정. (2012). Marie Antoinette의 초상화를 통해 본 18세기 후기 여성 복식의 변화와 계몽주의 사상: 1770-1793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62(1), 120-136.
- 백영자, 김윤희. (2010). *서양복식문화*.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신상옥. (2010).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 안병기. (2003). *패션전문용어의 이해*. 서울: 경춘사.
- 안효진. (2008). *장식봉제 기법을 응용한 뉴 러셔리 티셔츠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송옥, 김경실, 간호섭. (2006). *패션디자인*. 서울: 수학사.
- 이경옥. (2009). *부착 장식 기법에 의한 패션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나영. (2009).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자수기법의 분석을 통한 디자인 개발 연구: 2000년 이후 패션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홍. (2003).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의상 장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1), 20-46.
- 이슬아. (2004). *패션에 나타난 비즈장식 디자인 연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Paris, Milan, New York, London 컬렉션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 (2007). *19세기 서양 남성복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로맨틱시즘 경향과 특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희. (2003). *비즈장식 기법을 응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화연. (2007).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남성복 장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 9(2), 31-48.
- 정희경, 이명희. (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개더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 6(3), 1-8.
- 정홍숙. (2009).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조규화, 이희승. (2004). *패션미학*. 서울: 수학사.
- 조규화. (1995). *복식사전*. 서울: 경춘사.
- 차혜인. (2012). *1990년 이후 복식에 나타난 장식 유형과 기법 분석: 벨플린의 시형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주영. (2007). *리본 자수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타오샤, 권혜숙. (2012). 여성복 패션컬렉션에 표현된 플리츠 디자인의 특성: 2009년 F/W부터 2012년 S/S까지 밀라노, 파리, 뉴욕 컬렉션을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16(5), pp.57-73.
- 패션큰사전 위원회. (1999).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 편집부. (1997). *FASHION 전문 자료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 한명숙. (1998). *복식표현의 위상*. 서울: 경춘사.
- 함연자. (2005). 18~19세기 복식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양식의 미적 가치. *한국복식학회지*, 55(6), 125-140.
- Hart, A., North, S., Davis, R., & Davis, L. (2009).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 London: V&A Publishing.
- Herbert, R. (2001). *디자인론(정시화 역)*. 서울: 미진사.
- Beatrice, B. (2013). *패션: 의상과 스타일의 모든 것(이유리, 정미나 역)*. 서울: 시그마북스.
- Blanche, P. (1988). *복식의 역사-고대 이집트에서 20세기까지(이종남, 안해준, 김선영 역)*. 서울: 까치.
- Colette, W. (2011). *패션 섬유 조형 예술(양경희 역)*. 서울: 에코모다.
- James, L. (2010). *서양패션의 역사(정인희 역)*. 서울: 시공아트.
- Johnston, L. L. A., Kite, M., Davis, R., Davis, L., & Persson, H. (2009). *Nineteenth-century fashion in detail*. London: V&A Publishing
- Patrick J. I. (2004). *패션디테일(송정희 역)*. 서울: 예경.
- Victoria, E. (1988). *신체장식(임숙자 역)*. 서울: 경춘사.